

2026년 8월 10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주도주 소외 현상의 해소 구간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 협상 복귀 과정, 2) 미국 7월 CPI, 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3) 시스코, 코어워브, AMAT 등 미국 테크주 실적, 4) 미래에셋증권,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5) 국내외 반도체주 투자심리 및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000~7,000pt).

지난주 미국 증시 신고가 과정, 국내 증시 반등 과정에서 반도체주만 취약한 주가흐름을 보이는 등 주도주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민 거리. 이런 측면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은 중반부로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도주인 반도체를 포함한 코스피 전반의 회복 탄력성과 직결된 기업 실적이 추가로 대기 중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백화점, 증권, 보험 등 여타 업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TSMC 7월 매출, 시스코, 코어워브, AMAT 등 해외 테크주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클 예정. 이들 실적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 1분기 실적 시즌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제를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하고 가는 것이 적절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7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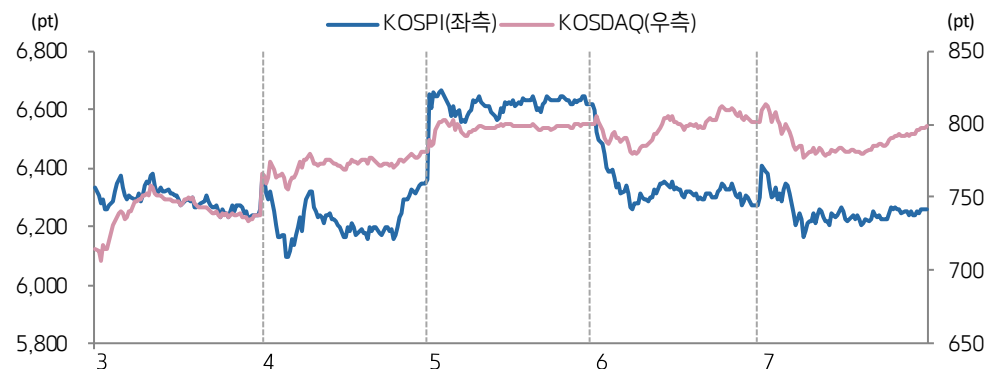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황 우려와 차익실현 매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성장주 순환매가 하방을 지지하며 혼조 마감(KOSPI -5.1%, KOSDAQ +10.98%)

주 초반에는 직전 거래일 코스피가 17% 넘게 급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메모리 수요 정점론과 장기공급계약 논란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 이후 반도체 대형주가 반등하고, 엔비디아와 AI팩토리 협력을 발표한 네이버 등 성장주가 강세를 보임. 주 중반에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 진전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중동발 부담이 완화되며 위험선호 심리가 빠르게 회복. 다만 주 후반에는 샌디스크의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와 구글의 AI 핵심 인력 이탈 소식이 글로벌 AI·반도체 투자심리를 다시 위축시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하며 코스피가 재차 약세를 나타냄. 반면 코스닥은 로봇·바이오를 중심으로 대형주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코스피 급락 국면에서도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임.

대외적으로는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 변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흐름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는 AI 수요 둔화 우려를 완화하며 반도체 투자심리를 지지했고,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유가 하락도 주중 위험 자산 선호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반면 샌디스크의 실적 가이던스 부진과 AI 관련 인력 이탈 소식은 반도체 업황 고점 논쟁을 재차 자극하며 외국인 수급 불안을 키움. 특히 코스피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등락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린 반면, 코스닥은 로봇·바이오 등 성장주로 순환매가 유입되며 상대적 강세를 이어감.

업종별로 건설(+17.42%), 화학(+10.46%), 금속(+8.47%), 기계/장비(+7.72%), 일반서비스(+7.25%)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11.04%), 제조(-7.05%), 섬유/의류(-5.89%), 보험(-4.51%)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5조 9,016억 원)은 통신(-909억원), 건설(-837억원), 금속(-108억원), 의료/정밀기기(-83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2조 3,099억 원)은 운송장비/부품(-890억원), 보험(-618억원), 금융(-185억원), 섬유/의류(-117억원)순으로 순매도.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8월 10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8월 10 일	월	중국	CPI (YoY, 9 일)	7 월	0.8%	1.0%	
			PPI (YoY, 9 일)	7 월	3.8%	4.1%	
		실적	TSMC (7 월 매출)		-	-	
		실적	LX 인터내셔널		-	-	
8월 11 일	화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	7 월	97.3	97.4	
		휴장	일본(산의 날)		-	-	
		실적	GS, 신세계, CJ 제일제당, NHN		-	-	
		실적	로켓랩, 사이먼 프로퍼티		-	-	
		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	-	
8월 12 일	수	미국	CPI (MoM)	7 월	0.1%	-0.4%	
			CPI (YoY)	7 월	3.4%	3.5%	
			근원 CPI (MoM)	7 월	0.2%	0.0%	
			근원 CPI (YoY)	7 월	2.5%	2.6%	
	한국	실업률	7 월	-	2.7%		
	실적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코, 코어위브		-	-		
	실적	루멘텀 홀딩스		-	-		
	실적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	-		
	행사	MSCI 분기 리뷰		-	-		
	8월 13 일	목	미국	PPI (MoM)	7 월	0.5%	-0.3%
				근원 PPI (MoM)	7 월	-	0.2%
일본			PPI (YoY)	7 월	7.5%	7.1%	
실적		삼성화재, DB 손보, 삼성생명, LG		-	-		
실적		브룩필드, 알리바바, 코히런트		-	-		
행사		한국 옵션 만기일		-	-		
8월 14 일		금	미국	소매판매 (YoY)	7 월	6.5%	6.7%
			소매판매 (MoM)	7 월	0.2%	0.2%	
			미시간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8 월	54.1	55.2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1 년, 잠정치)	8 월	4.2%	4.2%	
	한국		수출 물가지수 (YoY)	7 월	-	48.9%	
			수입 물가지수 (YoY)	7 월	-	20.6%	
	실적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	-	
	실적		현대해상, 메리츠금융지주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미-이란 협상 복귀 과정, 2) 미국 7월 CPI, 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3) 시스코, 코어위브, AMAT 등 미국 테크주 실적, 4) 미래에셋증권,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5) 국내외 반도체주 투자심리 및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회복에 나설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000~7,000pt).

7일(금) 미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연 소식에도, 미국 7월 고용 둔화에 따른 연준의 9월 인상 전망 약화 및 미국 시장금리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AI, 테크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다우 +0.3%, S&P500 +0.6%, 나스닥 +1.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

미국의 7월 고용은 증시에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 7월 실업률(4.1% vs 컨센 4.2%)은 하락했으나, 신규 고용(-2.3만건 vs 컨센 +8.5만건)과 시간당 평균임금(YoY, +3.2% vs 컨센 3.5%)이 컨센을 크게 하회했기 때문. 마이너스 고용을 놓고 침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월드컵 특수 효과 소멸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데다, 실업률 하락에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영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실제 해고 급증의 신호도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번 7월 고용은 연준의 금리인상 명분을 약화시키는 “Bad is good”의 재료였던 것으로 판단.

7월 고용 결과를 소화하면서 FedWatch상 9월 FOMC 금리 동결 확률이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 확률보다 우세해진 상황(동결 55.6% vs 인상 44.4%). 추후에도 금리 동결 전망이 강화된다면, “미 10년물 금리 레벨다운 -> 증시 할인율 부담 완화 + 빅테크 AI용 투자 자금 조달 부담 경감” 등의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와 연장선상에서 주 중 예정된 미국의 7월 CPI를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할 전망이다. 현재 블룸버그상 7월 CPI 헤드라인과 코어의 컨센서스는 각각 3.4%(YoY vs 6월 3.5%), 2.5%(YoY vs 6월 2.6%)으로 지난달보다 하락할 것으로 형성.

이렇게 시장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진 측면이 있기에, 컨센에 부합할 시 실제 증시 반응은 미온적일 여지가 있음. 다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둘러싼 노이즈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잔존하고 있는 구간임. CPI, PPI 등 7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쇼크를 기록하지 않는 한, 매크로상 위험 선호심리를 지속시켜주는 재료가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지난주 미국 증시 신고가 과정, 국내 증시 반등 과정에서 반도체주만 취약한 추가흐름을 보이는 등 주도주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민 거리. 이런 측면에서 2분기 실적 시즌은 종반부로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도주인 반도체를 포함한 코스피 전반의 회복 탄력성과 직결된 기업 실적이 추가로 대기 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백화점, 증권, 보험 등 여타 업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TSMC 7월 매출, 시스코, 코어위브, AMAT 등 해외 테크주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클 예정.

주 초반 예정된 TSMC 7월 매출의 경우,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상향했던 3분기 매출 가이드언스를 충족시키는 매출 성장을 달성이 관건. 실제 성장 모멘텀이 개선될 시 AI 가속기와 선단공정 수요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HBM 및 서버용 디램 수요의 가시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

2026년 8월 10일

KIWOOM WEEKLY

클라우드 업체 코어워브는 최근 시장의 핵심 논쟁인 AI 수익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벤트. 해당 업체는 매출 성장과 수주잔고 확대에도 CAPEX 부담, 이자비용 증가 등의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 따라서, 이번 실적에서는 이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매출과 수익성 개선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지가 관전 포인트.

또 시스코 실적에서는 AI 투자 사이클이 반도체를 넘어 네트워크까지 확산되고 있는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 실적 역시 DRAM 장비 투자와 HBM용 첨단패키징 수요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가 중요.

개별 실적 하나하나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 피로도 높은 장세가 되겠지만, 7월말 이후 MS,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 (가이던스 기대치 미달 여진이 남아있지만), AMD, 샌디스크 등 반도체 주 실적을 통해, AI 수요 가시성 및 수익성 불안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따라서, 주중 예정된 상기 업체들 실적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AI 및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를 한층 더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 이는 지난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 5조 원대 순매도를 단행했던 외국인 수급 환경도 개선시켜주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 결국, 이들 해외 기업 실적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 1분기 실적 시즌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제를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하고 가는 것이 타당.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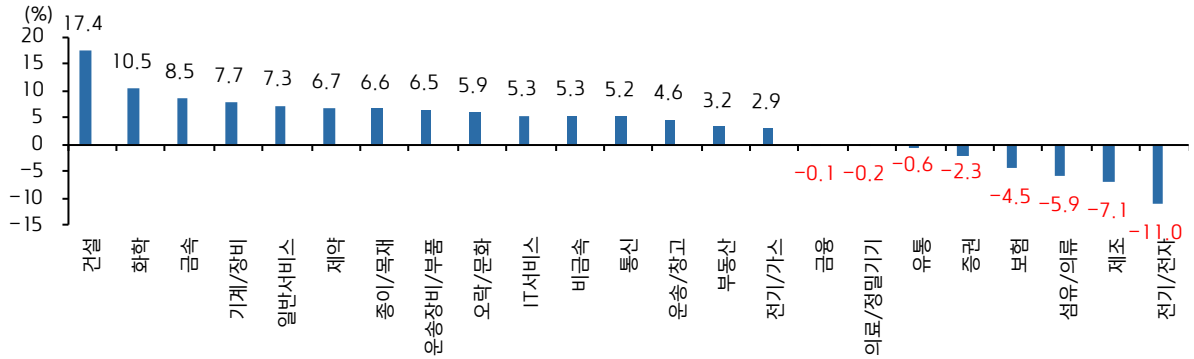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258.77	-0.6	-5.1	-18.3	48.5
대형주	6,803.11	-0.7	-6.2	-19.5	55.4
중형주	3,982.69	0.6	8.3	-3.2	7.0
소형주	2,330.70	0.8	5.9	0.8	-7.4
코스피 200	974.73	-0.8	-6.9	-20.5	60.9
코스닥	798.81	-0.4	11.0	-3.9	-13.7
대형주	1,955.02	-0.5	12.0	-6.9	-13.2
중형주	820.68	-0.3	10.6	-1.2	-8.8
소형주	2,280.85	0.0	8.3	0.7	-11.4
코스닥 150	1,368.34	-0.2	12.7	-6.6	-11.6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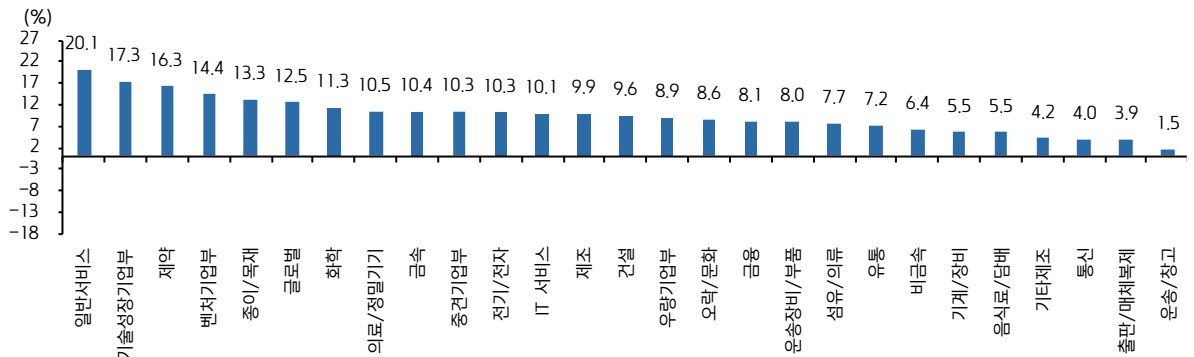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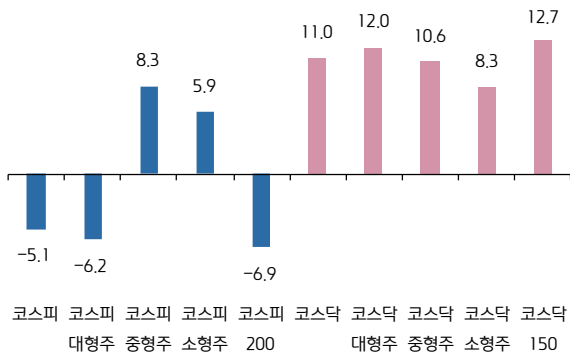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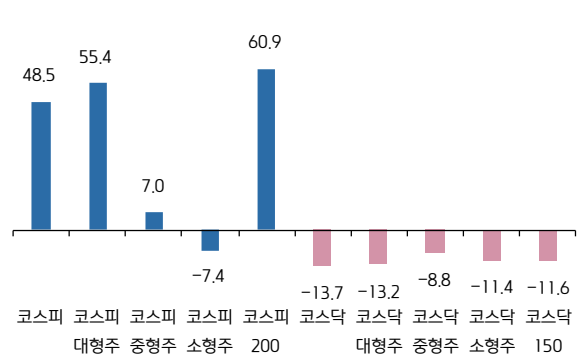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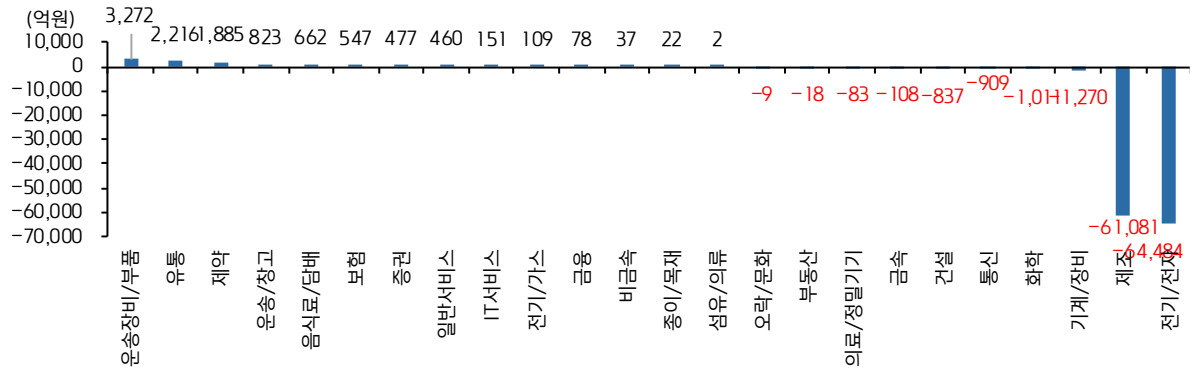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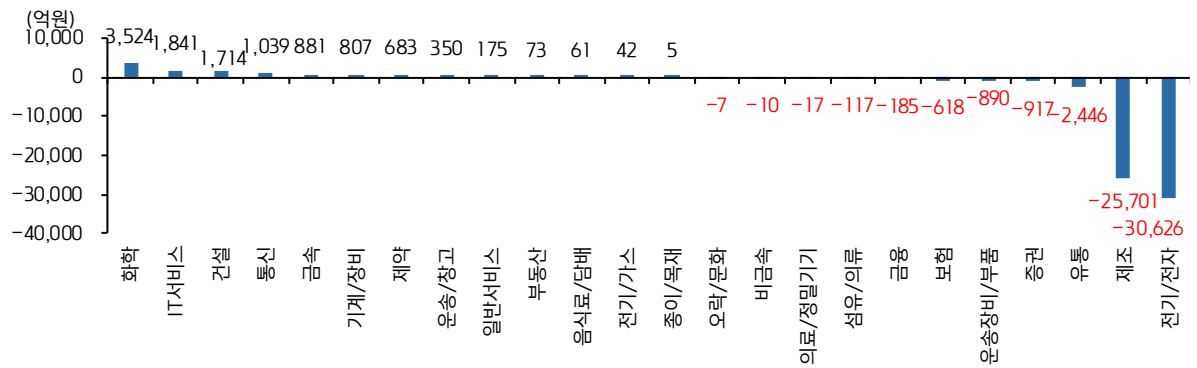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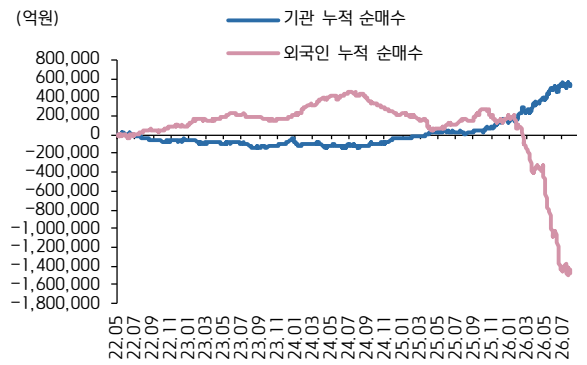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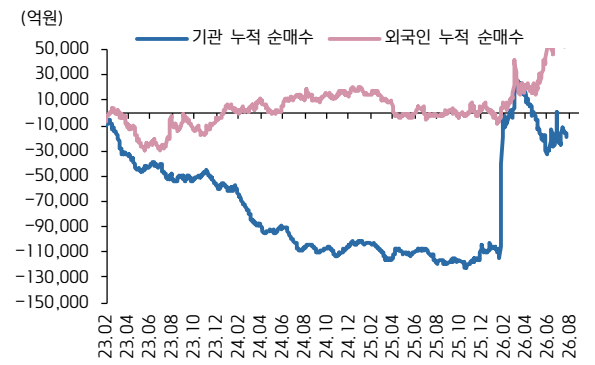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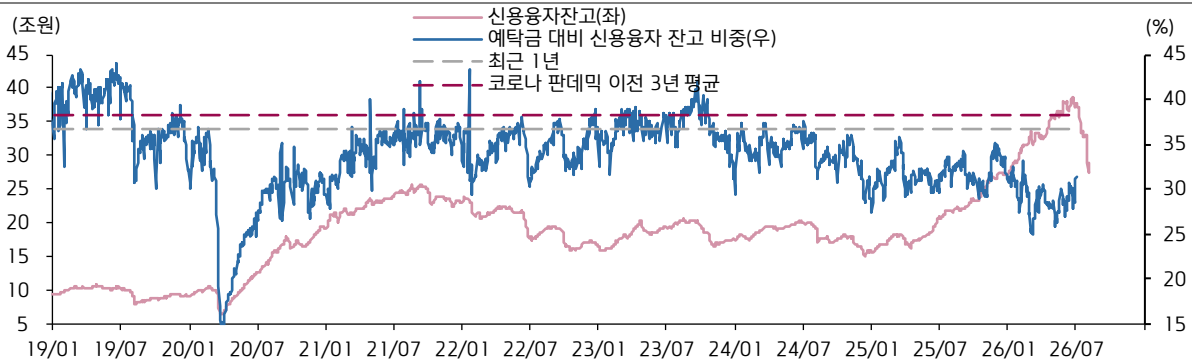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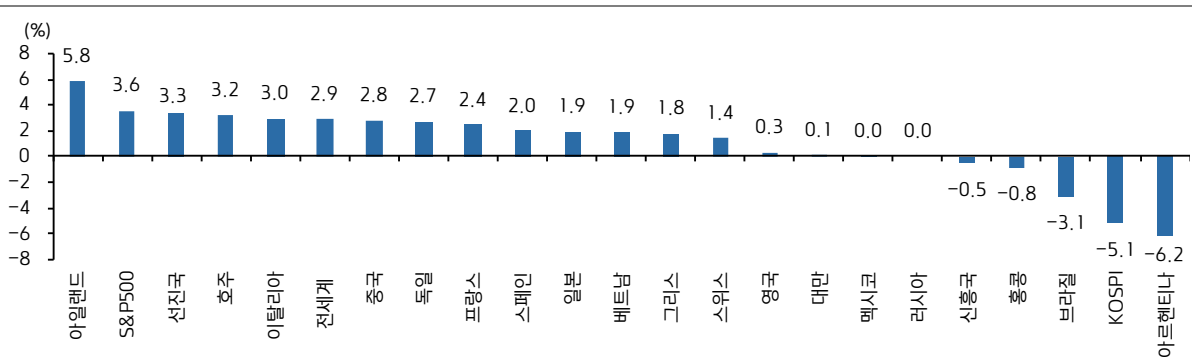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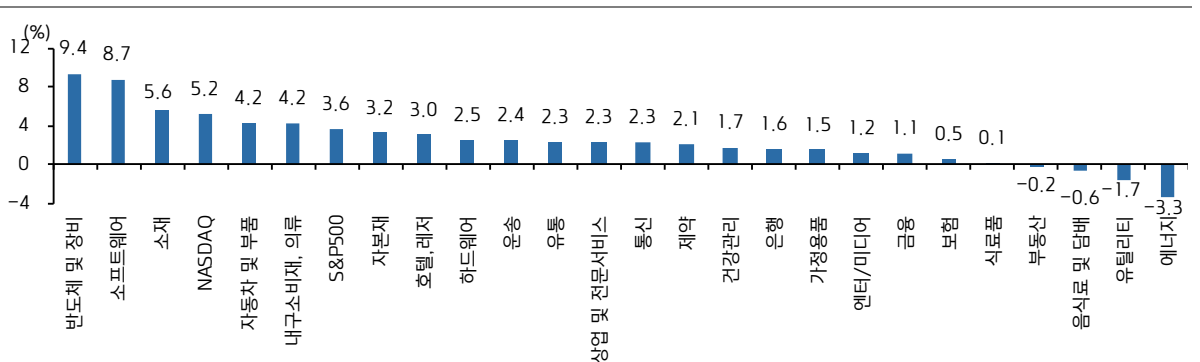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